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¹⁾

Korean Society's Inclusivity as Perceived by Migrants

변수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정도를 이주민의 시각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 수용성 개념 중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하위 개념별로 한국인의 수용 정도와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 정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았다.

문화 개방성과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이 되는 자격 기준에 대한 다양성 인정 정도를 알아보는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측면에서는 모두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증가하고 이주민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개방적이라고 느끼지만, 이주민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만큼 이주민이 한국인을 수용적이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과 한국인의 생각 차이와 경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들어가며

2020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4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한다(KOSIS,

2020).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1) 이 글은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8)에 따르면, 보편성·다양성·관계성 등의 지표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에서 한국인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2.81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의 수용성 수준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조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알아볼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례들을 통해 알게 될 수도 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의 경험(이우연, 2021)이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특정 이주민 집단을 혐오하는(장이츠, 김민아, 2021) 사례를 최근에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수용성을 직접 알아본 조사 결과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한국이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는 실제 생활에서의 거부, 차별이나 혐오 등으로 인해 일부 이주민은 한국 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쌓아 갈 가능성이 있다. 포용 사회라는 지향점과 현실 사이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수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관찰은 주로 한국인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관한 수용성 파악에서는 한국인뿐 아니라 이주민도 중요한 주체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알아볼 때는 지금까지 많이 확인해 왔던 한국인의 관점이 아닌 이주민의 시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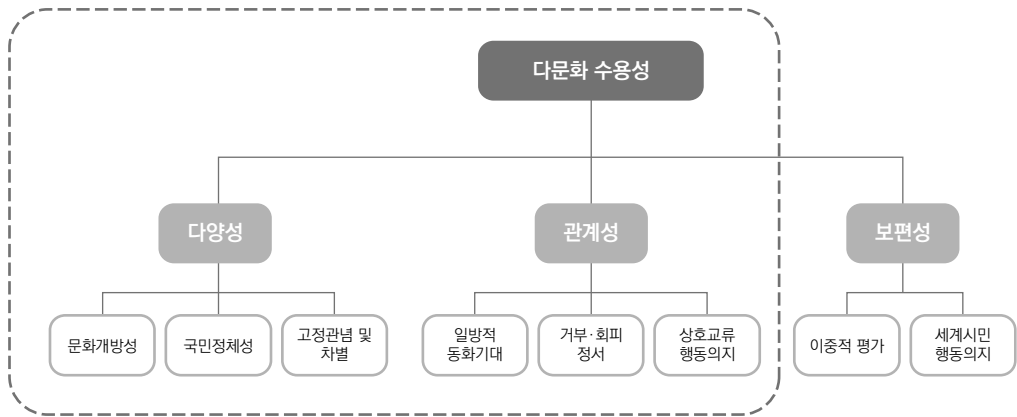
이 글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변수정 외, 2021)를 활용해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수용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수용성과 관련한 한국인의 생각과 태도를 이주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을 활용해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수용 정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수용성의 범위와 조사 대상

변수정 외(2021)의 연구는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8)²⁾의 항목을 활용해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³⁾를 시행하였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차원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각 차원은 2~3개의 하위 개념을

2) 전국의 만 19~74세 일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하였다.

그림 1.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과 활용 범위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청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그림 4-1].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이주민에게 적절한 질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시각에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한다.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에서는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한국인 대상 질문을 이주민 입장에서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주민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인 대상 질문과 이주민 대상 질문의 구체적인 항목은 이어지는 글의 <표 1>~<표 6>에 제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응답의 선택지는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

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점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응답 점수는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두 조사 결과 분석 시 동일하게 비수용적인 내용의 항목에 대해서는 역코딩한 점수를 산출해 활용하였다. 척도를 동일하게 활용했음에도 조사 방법 및 대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조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수용성과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와 경향성을 검토하는 차원의 비교임을 밝혀 둔다.

3) 단기 체류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이주민 1,31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하였다. 이주민 언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조사에서 특정 국가 출신이 배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질문지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였다.

3.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의 하위 개념을 살펴본다.

가. 문화 개방성

문화 개방성은 다양한 민족·문화,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의 증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이웃에 거주하는 것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다양한 문화는 한국이 다양한 민

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개방성이 고, 두 번째 개방성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 마지막 문화 개방성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나와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에 관한 항목이다.

한국인의 응답과 한국인의 생각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응답한 것에 비해 이주민이 한국인의 문화 개방성을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 등에 대한 수용과 이주민 증가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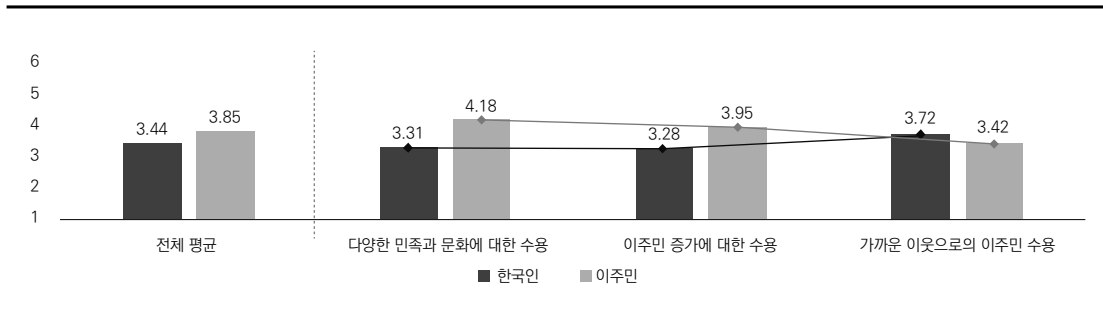
표 1. 문화 개방성 항목

구분	한국인의 문화 개방성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문화 개방성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1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2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4-20> 수정.

그림 2. 문화 개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항목 3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그림 6-3].

것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의 문화 개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이웃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응답 점수가 이주민의 응답 점수보다 낮아 한국인의 생각과 달리 이주민은 이 점이 가장 개방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민은 다양한 문화나 이주민의 증가에 한국인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자신들이 가까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지 않다고 인식해 서로의 생각이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나. 국민 정체성

국민 정체성에서는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다. 피부색의 중요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주민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정체성 전체로 보면,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인이 되는 기준에서 피부색과 한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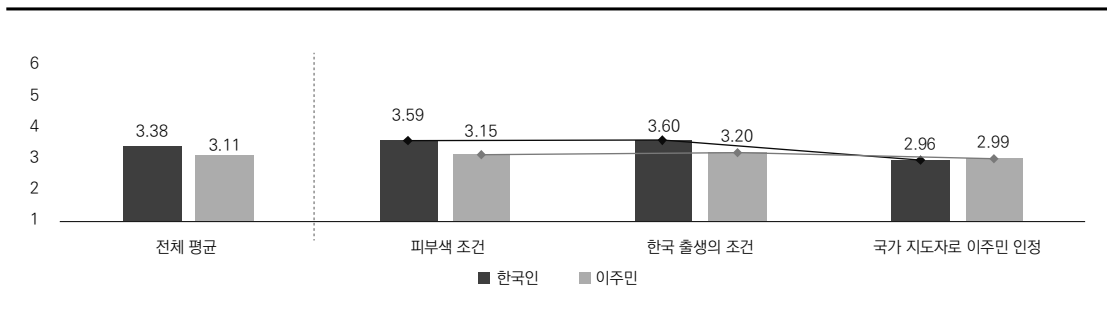
표 2. 국민 정체성 항목

구분	한국의 국민 정체성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의 국민 정체성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1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했다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했다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4-21) 수정.

그림 3. 국민 정체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그림 6-4].

출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로 이주민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나 이주민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체성 항목 중 한국인과 이주민이 공통적으로 가장 덜 개방적인 태도와 인식을 보인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을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의 수용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주민은 한국인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인을 인식하고 있다.

다. 고정관념

다양성 차원에서 알아본 마지막 하위 개념은 고정관념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관념 조사에서는 요리, 음악이나 무용, 종교 행사에 대해 따로 구분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이주민 대상 조사에서는 세 항목을 종합해 이주민만의 활동에 대한 하나의 항목으로 대체하였

다. 따라서 한국인의 응답과 이주민의 응답 문항 수가 다르며, 평균을 비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점수가 높은 것은 그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관념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개방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민은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정도보다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주민끼리의 활동에 대한 것보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이주민 역시 한국인은 이주민끼리의 활동보다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고정관념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정관념은 다른 개념들과 비교해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에 약간 차이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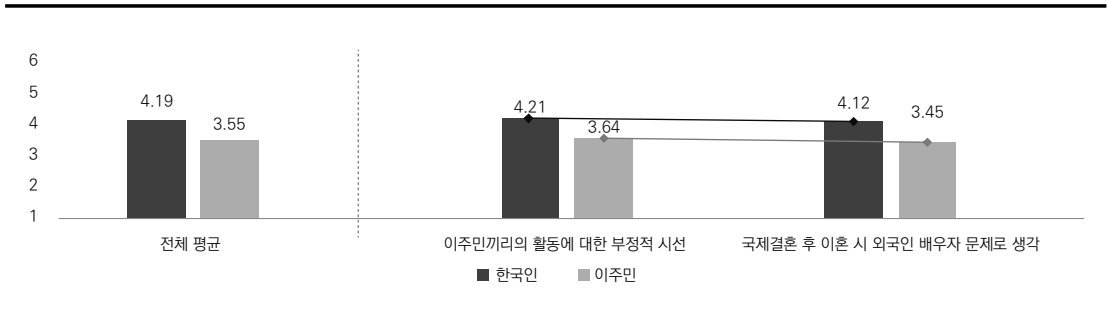
표 3. 고정관념 항목

구분	한국인의 고정관념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고정관념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1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2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3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4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4-22> 수정.

그림 4. 고정관념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그림 6-5].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은 고정관념이 없이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주민의 시각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정도로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없지는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중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을 비교하였다. 첫째,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문화 개방성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국민 정체성에서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한국인이 덜 수용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고정관념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덜 수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화 개방성 측면에서 한국인의 수용성은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 정체성이나 고정관념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 수준이

더 낮아, 이주민은 한국인이 덜 수용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4.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성 차원은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일방적 동화 기대

일방적 동화 기대는 한국인의 동화 기대,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동화 기대, 그리고 이주민의 동화에 대한 생각을 비교한다. 동화 기대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동화에 대한 기대를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주민이 생각하는 동화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 기대 수준과 함께 일방적 동화 수준에 대한 이주민의 생각을 추가로 알아보았다. 각 질문 항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일방적 동화 기대 항목

구분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 기대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 기대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에 관한 생각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1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나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란다	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4-23>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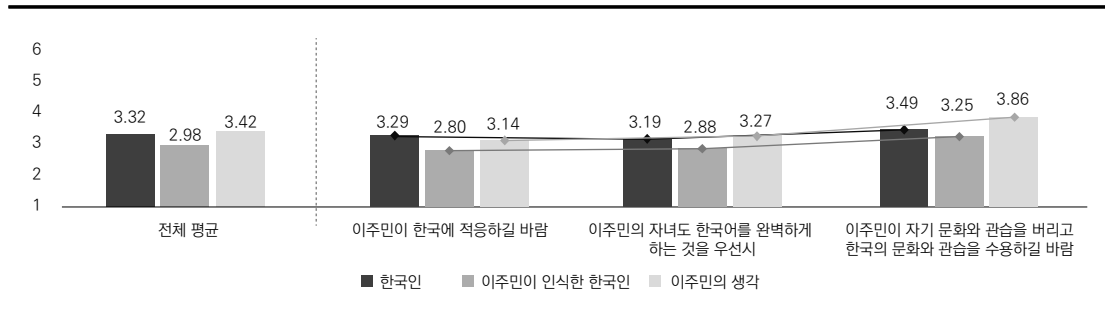
먼저,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 기대 정도와 이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파란색과 주황색 막대그래프),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동화 기대 정도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이주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방적 동화를 덜 기대하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주민에게 더 일방적 동화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주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 수준(노란색 막대그래프)은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에 가깝다. 한국인과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이주민이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동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이다. 다른 항목

그림 5. 일방적 동화 기대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그림 6-6].

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수준의 동화는 아닌 반면, 마지막 항목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관습을 따르는 수준의 동화에 대한 항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은 다른 항목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주민은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엿볼 수 있어 일방적 동화 기대에서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거부·회피 정서

거부·회피 정서에서는 두 개의 항목을 비교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보다 경제발전이 덜 이루어

진 국가에서 온 것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대중교통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때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불편함이다.

전반적으로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가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수준이 더 낮아, 이주민이 한국인을 덜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항목 사이의 차이를 보면, 한국인은 한국보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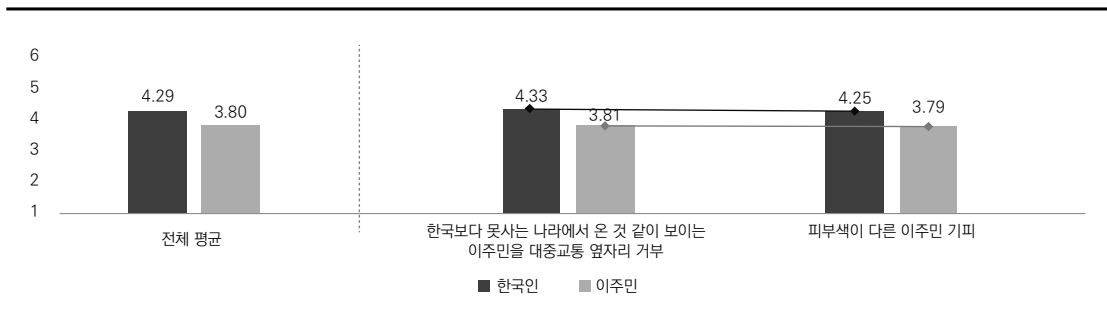
표 5. 거부·회피 정서 항목

구분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한국 사람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것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2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하기 싫다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4-24> 수정.

그림 6. 거부·회피 정서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그림 6-7].

이 달 된 국가 출신에 대한 수용 정도보다 피부 색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가 약간 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인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이주민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상호 교류 행동 의지는 두 개의 항목으로 비교해 보았는데, 이주민과 모임이나 활동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의지와 먼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상호 교류 행동 의지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에 비해 이주민은 한국인의 태도를 더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과 함께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은 평균 3.0점 이하로 나타나 수용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보다는 한국인이 교류에 대한 행동 의지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이 한국인은 자신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지려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중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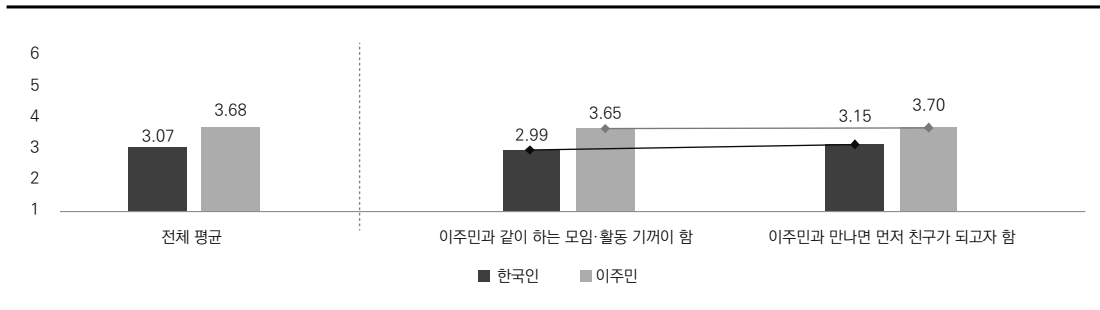
표 6. 상호 교류 행동 의지 항목

구분	한국인의 상호 교류 행동 의지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상호 교류 행동 의지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1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2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 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4-25> 수정.

그림 7. 상호 교류 행동 의지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그림 6-8].

지를 비교하였다. 첫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일방적 동화를 더 기대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스스로 응답한 거부·회피 정서 수준보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가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수준보다 한국인은 더 높은 수준의 상호 교류 행동 의지를 가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측면의 수용성에서는 실제 한국인의 생각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의 태도를 더 개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동화 기대와 거부·회피 정서 차원에서는 반대로 한국인의 생각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개방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수용성 수준을 한국인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던 것에서 나아가 이주민의 시각을 통해 검토하였다.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결과와 이주민이 응답한 한국인에 대한 인식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한국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수준을 종합해 보면, 한국 사회는 여러 민족·

인종이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는 것, 이주민이 지도자가 되는 상황 등에 대한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주민이 한국의 주류가 되거나 이주민이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민을 수용하지는 않는 선택적 수용의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는 기준보다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기준과 일방적 동화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도 보인다.

이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문화 개방성과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한국을 더 개방적이라고 인식하지만, 한국인이 되는 기준 및 조건과 같은 국민 정체성이나 일방적 동화 기대 등에 대해서는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한국인이 덜 수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이 실제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생각을 파악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 개방성 측면에서 한국인이 생각한 것보다 이주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이웃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주민이 한국인이 응답한 것만큼 개방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과 이웃으로 공간을 공유하며 나타나는 문제들이 종종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문화

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주민이 생활 규칙이나 관습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같이 실천 방법을 알려주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와 강조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거나 거부·회피하지 않고 개방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주민은 한국인이 그보다 덜 수용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준은 이주민이 차별적인 태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요인이기에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나 인종을 이해하고 수용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의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집단과 개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 의식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반(反)편견·반(反)차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이 더욱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는 소수 집단이 주류 집단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획일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강력한 동화주의적 입장보다는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방적 동화 기대에서 확신했듯이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기대하는 동화 수준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면, 한국인이 기대하는 일방적 동화 기대 수준보다 이주민

은 한국인이 더 기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이주민에게 더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이나 개개인의 태도에서 이주민 당사자와 그들이 가진 문화를 인정하고 한국인과 이주민이 공존을 위해 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류가 필수적인데, 상호 교류 행동 의지는 이주민의 인식보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의지가 낮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피상적 교류보다는 질 좋은 교류의 기회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민 포용이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전개하기보다 정책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주민의 상황이나 생각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생각의 교차점을 찾아내어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해 나간다면 진정한 다문화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

참고문헌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 이우연. (2021. 10. 4.). 코로나로 이주노동자 줄었는데...임금체불은 3년 새 34%나 늘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675.html#csidxe1ceb25cf01d6988b1fafa6abc60c57에서 2021. 10. 15. 인출.
- 장이츠, 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보건사회연구, 41(1), 22-41.
- KOSIS. (2020).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1975049&outLink=Y#content-group>에서 2021. 10. 12. 인출.

Korean Society's Inclusivity as Perceived by Migrants

Byoun, Soo-Jung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current article attempts to understand the multicultural inclusivity in Korea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Among the concepts of multicultural inclusivity, the diversity dimension and relational dimension were dealt with, and differences in thoughts between Koreans and migrants were investigated.

Regarding 'cultural openness' and 'intention to interact', migrants perceive Koreans to be more receptive than Koreans do. However, migrants perceive that Koreans are less receptive than Koreans' thoughts in terms of 'national identity', 'stereotypes', 'assimilation expectations', and 'rejection/avoid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migrants, Koreans think that they are open to interacting with migrant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different races and cultures in Korea but migrants don't feel receptive as receptive as Koreans' thoughts. Implications are provided based on the differences and tendencies of thinking between migrants and Koreans.